

선박 63 / 제주 지방선거 브리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당·이름 가나다 순>

문대림 “도청 실국장 회의도 유튜브 생중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선거에 출마하는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되면 도청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국장 회의를 생중계하고 공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회의 공개는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 대표적 사례”라며 “제주도청 역시 이

러한 흐름을 계승해 도민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후 설명 중심’ 도청 운영에서 벗어나 정책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전 과정을 도민과 공유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로 실·국장 회의 공개를 통해 정책의 출발 단계부터 결정 과정까지 도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문 의원은 실·국장 회의를 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공개해 도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댓글과 온라인 의견 접수 등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 과정에 반영하는 소통 체계도 함께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위영석기자

위성곤 “강력한 금융 공급망 구축할 것”

제주특별자치도지사선거에 출마하는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진짜 민생시리즈’ 네 번째 정책으로 부채상환이 임계점에 도달한 저신용 차주와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주경제 금융지원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다. 위성곤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의 지역사회개발금융기

관(CDFI) 모델을 벤치마킹한 이른바 ‘금융 심폐소생술’을 통해 고금리 사채의 늪에 빠지기 전 공공이 선제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강력한 금융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또 관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지역상권의 자영업자, 농민들을 위해 관광진흥자금, 농어



촌진흥자금,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주요 정책금융의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도차원의 이차보전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행 제도의 맹점인 ‘대출 상환 후 1년 경과 규제’를 개선해 즉시 대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영석기자

김명호 “제주 제2공항 공개 토론” 제안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경선 주자들에게 제2공항 해결 공개 회동 및 토론을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1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 11년 갈등을 끝낼 방법은 주민투표뿐”이라며 “제2공항 문

제 해결을 위해 도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역시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는 결과가 반복되고 있다”며 “도민이 직접 결정해야 이 갈등을 끝낼 수 있다. 이제 여론조사가



아닌 결정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부터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겠다”며 “민심과 민주주의를 받들어 내란청산의 광장과 의회를 이끌었던 우리가 제주도민을 위한 논의의 자리를 함께 열어 내자”고 강조했다. 오소범기자

취약계층 재취업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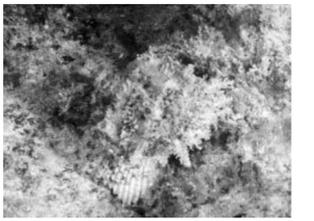
취업 취약계층의 재취업을 돕는 2026년 맞춤형 취업촉진프로그램이 이달부터 운영된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심리적 안정 회복부터 실질적 취업역량 강화에 이르기까지 준비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구직자는 연령·성별별 특성에 맞

게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심리 안정지원프로그램 중 선택 참여할 수 있다. 우선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경우 집단상담과 취업특강으로 나뉜다. 집단상담은 15명 내외 소규모 그룹으로 3-4일 집중 진행되며,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취업희망 프로그램, 40대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신중년 재취업설계프로그램 등 4개 과정이 운영된다. 취업특강프로그램은 2시간 내외로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면접준비 요령, 취업정보 수집 방법 등의 교육이 이뤄진다.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은 전문 심리상담사와의 1:1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 신청은 고용24 누리집 또는 제주고용센터(전화 710-4223)를 통해 가능하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국내 미기록종 가칭 ‘해조감펭’ 첫 발견

성산일출해양·꽃자왈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최종보고회 “해수는 상승으로 아열대·열대 어종 국내 연안 서식지 확장”



최근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에서 발견된 국내 미기록종 가칭 ‘해조감펭’. 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에서 국내 미기록 어종인(가칭) ‘해조감펭’이 발견되며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서귀포시는 19일 서귀포시축협 축산물플라자 세미나실에서 국립공원연구원 연구진,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귀포시 도립공원(성산일출해양, 제주꽃자왈) 자연자원조사 최종보고회’를 갖고 지난 1년간의 조사 성과와 향후 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연구조사 용역기간(2025년 4월~2026년 3월)에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에서 국내 미기록종인 ‘해조감펭’이 첫 발견되는 등 해양 생태계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데이터가 확보됐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국명으로 ‘해조감펭’은 세계적으로 아열대와 열대 해역에 서식하며 해수는 상승으로 한국 연안으로 어류상이 확장된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1개체가 발견되며 향후 5년 단위로 이뤄지는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에서 개체 수 증가에 따라 어류상의 확장 여부가 밝혀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이번 조사에서 ‘활줄나비고기’ 성어가 성산일출봉 수중에서 관찰되며 기후변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탁 트인 광장을 비롯해 128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 각종 전시와 행사를 위한 시민문화홀, 그리고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분수대와 도시 숲 조성 등이 있다. 특히 시는 공간 조성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지난해 9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립된 의견을 바탕으로 광장 내 분수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시민 체감형 시설을 확충하고 아름다운 야간 경관조명 시설을 보태며 밤낮으로 활기를 띠는 공간으로 문화광장을 조성했다. 백금탁기자



19일 서귀포시축협에서 열린 ‘서귀포시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최종 보고회’. 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 ‘시민광장’ 10년 만에 완공

문화홀·도시숲·야간조명 등 공연·편의시설 조성

서귀포시 도심 속 소통과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인 ‘문화광장’이 10년 만에 완공돼 시민 품에 안긴다. 서귀포시는 지난 2015년부터 원도심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한 핵심 프로젝트인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이 모든 공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24일 공식 개장식을 갖는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시설로는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탁 트인 광장을 비롯해 128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 각종 전시와 행사를 위한 시민문화홀, 그리고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분수대와 도시 숲 조성 등이 있다. 특히 시는 공간 조성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지난해 9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립된 의견을 바탕으로 광장 내 분수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시민 체감형 시설을 확충하고 아름다운 야간 경관조명 시설을 보태며 밤낮으로 활기를 띠는 공간으로 문화광장을 조성했다. 백금탁기자

Advertisement for '국립종자원 인증' (National Seed Resource Certified) '무병묘' (Disease-free seedlings) production. It lists various products like '도내 / 국내육성품종' (Local/Domestic bred varieties) and '포트묘' (Pot seedlings), along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푸른지게장원농장 (Purongijejangwon Nongjang).

Advertisement for '씨트묘목분양' (Seedling distribution). It lists '만감류' (Mankangju) varieties like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는봉' and provides details about the distribution proces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한라종묘 (Hanrajongmyo).

Advertisement for '감귤 신품종 분양' (Citrus new variety distribution) for 2026. It lists '만감류' (Mankangju) varieties like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는봉' and provides details about the distribution proces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한라종묘 (Hanrajongmyo).